

이정철 감독 ‘벌금 30만원’ 왜?

〈IBK기업은행〉

V리그 첫보기

심판에 “루크 백어택라인 침범” 항의
상벌위 “폭언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

새 심판위원장 체제 후 현장과 단절
권한 강해진 심판, 팀 위한 배려 필요



IBK기업은행 이정철(사진) 감독이 지난 3일 상벌위원회에 참석했다. 시즌 개막 이후 첫 번째 열린 상벌위원회다.

10월26일 흥국생명전이 끝난 뒤 폭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감독과 IBK 측에서는 반발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의 징계 및 징계금 반칙급 부과기준에 따르면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폭언·불손행위’의 경우 3경기 출전정지와 징계금 100만~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상벌위원회에서는 30만원의 징계금과 구두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정철 감독의 폭언 사건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26일 3세트 매치포인트 상황에서 흥국생명 투르크의 백어택으로 경기가 끝났다. 이때 투르크가 백어택 라인을 침범했는데(기업은행의 주장) 주심이 이를 무시하고 경기를 끝냈다는 것이다. 연맹은 백어택라인 침범이 화면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감독은 경기가 끝나자 전문위원석에 와서 항의했다. 이때 경기를 마친 주심이 와서 말을 주고받는 과정(심판은 경기가 끝난 뒤 경기와 관련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문율이다)에서 “심판이 왜 이래. 심판이 무슨 권력이나. 두고 보자”라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이 발언은 당시 중계방송 화면을 타고 안방에 전달됐다. 이것을 폭언으로 보느냐 아니냐가 상벌위원회 결정의 중요한 판단자료였다. 상벌위원회는 “이 감독의 발언이 흥분한 상황에서 과도하기는 했지만 폭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로 보면 단순한 해프닝이지만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많은 것이 숨어 있다. 이번 일은 현장 감독과 심판사이에 놓인 팽팽한 긴장감이 만들어낸 사건이다. 김건태 신임 심판위원장 체제 이후 심판은 현장과 벽을 쌓고 있다. 이전에는 경계가 너무 허물어져서 문제였다. 심판과 감독 혹은 구단이 시즌 도

중에 사적으로 만나는 일도 있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냥 넘어갔다. 그러다보니 판정의 불신이 높아졌다. 몇 차례 특정 상황에서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새 심판위원장은 이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긴장감이 생긴 이유다. 다양한 제도개혁을 통해 심판들이 보다 확실한 목소리를 내도록 했다. 합의판정을 없애고 비디오판정을 보완하면서 심판의 권한이 더 많아졌다. 대신 책임도 확실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심판의 결정이 중요해질수록 판정은 정확해야 하고 간혹 억울한 일을 당한 팀과 감독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심판은 경기를 매끄럽게 운영하는 관리자인데 지금은 원활한 운영보다는 강력한 집행에 초점을 맞춘다고 감독들은 본다. 그래서 나온 발언이 ‘권력’이고 (심판은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였다.

감독들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는 억울한 감독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아량을 보여 달라고 주장한다. 판정은 정확해야 하지만 경기를 하고 운영하는 사람들 모두 인간인 이상 단호하게 대처하고 시끄럽게 굴면 징계한다는 식의 대응보다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 달라는 요구가 이번 사건 뒤에 깔려 있다. 배려와 존중, 그리고 권한에 따른 책임이 이번 사건의 키워드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박상현, 배상문, 김경태, 김승혁(왼쪽부터)이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펼쳐지는 제30회 신한동해오픈 개막을 하루 앞둔 5일 대회 30주년을 기념하는 떡 케이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신한금융그룹

배상문 “신한동해오픈, 정확한 아이언 샷 관전”

올 시즌 KPGA 마지막대회…9일까지 개최
배상문·김경태·김승혁·박상현 등 우승다툼

“정확한 아이언 샷이 관건이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2014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마지막 대회로 열리는 제30회 신한동해오픈(총상금 10억원·우승상금 2억원)에 출전하는 배상문(28·셀라웨이), 김경태(28·신한금융그룹), 김승혁(28), 박상현(31·메리츠금융)이 꼽은 우승의 첫 번째 조건이다.

배상문은 5일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스의 길이가 길어 많은 버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공격적 플레이보다 인내가 필요한 코스다”며 “날씨가 추워져 평소보다 거리가 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긴 드라이브 샷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아이언 샷이 필요하다”고 우승 전략을 밝혔다.

김경태도 “어제 코스를 돌아봤는데, 아이언 샷의 결과에 따라 버디 찬스 혹은 위기가 될 수 있는 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박상현과 김승혁은 “다른 코스에 비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코스다.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 드라이

브 샷은 멀리 쳐야 하고, 아이언 샷은 정확해야 한다. 그리고 쇼트게임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우승을 겨냥했다. 배상문은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 미국에서 올 시즌 초 성적이 안 좋았는데, 새 시즌 개막과 함께 우승을 차지해 자신감을 얻었다. 국내 팬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박상현과 김승혁은 생애 첫 KPGA 투어 상금왕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박상현은 “한국오픈 전까지 줄곧 상금랭킹 1위를 달리다 김승혁 선수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으니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노려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김승혁은 “올해 첫 승에 이어 2승까지 했다. 분위기도 좋고 샷 감각도 좋다. 마지막을 멋지게 끝내고 싶다. 1위 자리를 지켜내겠다”고 응수했다. 5일 현재 김승혁과 박상현은 KPGA 투어 상금랭킹 1·2위에 올라 있다.

한편 신한동해오픈은 올해 메이저급 대회로 자리 잡았다. 올해부터는 우승자에게 5년간 코리아투어 시드권을 준다. 5년 시드 부여는 한국오픈과 KPGA선수권에 이어 3번째다.

인천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na1872

새라 30득점…GS칼텍스 4연패 수렁서 구출

천신만고 끝에 도로공사전 3-1 승



지난 시즌 챔피언 GS칼텍스는 NH농협 2014~2014 V리그 개막 이후 4연패에 빠졌다. 5일 평택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벌어진 경기가 1라운드 마지막 경기다. 인삼공사와 플레이오프 티켓을 경쟁했던 도로공사는 10월23일 흥국생명예 0-3 패배 이후 첫 경기다. 두 팀 모두 인천아시안게임 후유증을 겪고 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한 1승이 필요했고 첫 세트에서 분위기를 누가 가져오느냐가 중요했다.

●화식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 GS칼텍스

GS는 5일 경기결과에 관계없이 사상 주최 선수단 만찬일정을 잡았다. 선수들을 성려하기 위해서다. 대표팀을 지원하느라 오래 자리를 비운 이선구 감독은 시즌 초반 팀플레이에 이상이 생기자 플랜B를 빨리 꺼내들었다. 한송이의 센터 전환, 표승주의 레프트 출전, 주전세터 정지윤 고정 등이었다. 탄탄해진 수비에서 건어 올린 공을 해결해줄 외국인선수 새라의 결정력이 아쉽기는 하지만 “외국인선수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선수 각자가 한 점씩 더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선수들을 독려했다. 주장 한송이 등 선참은 따로 불러 “코트에서 공수가 되려고 하지 마라. 여전사가 되어서 투지로 동료들을 일깨워 달라”고 했다. 6일에는 선수들에게 외출도 약속했다.

●이효희와 기존 선수들의 호흡이 중요한 도로공사
FA선수로 영입했던 이효희가 대표팀 차출로 오래 자리를 비워 손발을 맞출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레프트 토종 선수들과의 호흡이 문제였다. 토스의 스피드나 높낮이가 전과는 달라 공격수들이 뛰어 들어오는 타이밍을 맞추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서남원 감독은 “아직은 흡족하지 않다”고 했다. 흥국생명전의 내용이 나뉘었지만 선수들도 경기의 중요성을 알 것으로 보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 얘기만 했다. 분위기를 살려서 신나게 배구를 하자고 했다”고 서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말했다.

●천신만고 끝에 GS가 웃다

1세트선 GS가 리드를 잡았다. 서브리시브와 수비가 잘 버텼고 새라가 필요한 때마다 결정력

을 발휘했다. 센터 한송이는 16-12, 20-18에서 블로킹으로 중앙을 잘 지켰다. 24-22에서 새라가 시간차로 세트를 마감했다.

2세트. 황민경이 김선영을 대신해 레프트에 투입되면서 도로공사의 서브리시브가 탄탄해졌다. 새라의 공격성공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이효희의 좌우를 이용하는 배본이 빛났고 도로공사가 25-16으로 쉽게 한 세트를 만회했다.

3세트에선 새라가 8득점하며 GS를 앞서게 했다. GS는 19-18에서 정지윤의 오픈공격, 이효희의 캐치볼 반칙, 한송이의 킥오픈, 니콜의 공격법실로 완전히 달아났다.

4세트. 이효희가 몰라났고 이고은이 선발로 나섰다. 5-10에서 추격전을 시작한 GS가 연속 7득점했다. 도로공사도 14-19에서 추격을 시작해 20-20까지 따라붙었다. 22-22에서 한송이가 킥오픈과 블로킹으로 매치포인트를 만들었고 니콜의 공격이 코트를 벗어나며 경기가 끝났다. GS가 천신만고 끝에 시즌 첫 승을 따냈고 화식 자리가 편안해졌다. 새라가 30득점 표승주~이소영~한송이가 30득점을 합작했다.

평택 |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역도연맹, 안효작 전무·염동철 이사 사표 수리

물품횡령·대표 불공정 선발 등 책임

대한역도연맹 관계자는 5일 “제95회 전국체전(10월 28일~11월 3일) 직후 연맹 안효작(56) 전무이사와 염동철(46·이상 한체대 교수)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고, 최성용 연맹 회장이 이를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안 전무는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대표팀 지도자의 선수 물품 횡령 의혹, 대표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에 대

해 책임을 지고 연맹 경기력향상위원장에서 물러났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여자대표팀 코치를 맡았던 염 이사는 대표선수의 훈련 동영상 유출, 선수 물품 횡령 의혹, 한체대 박사학위 논문 실험 과정에서 선수 동의 없이 생체 실험을 했다는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최성용 회장은 “사직서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연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선수 물품 횡령 의혹, 장비 공인 과정에서 부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서 작성까지 완료했다. 연맹에 대한 문제부 특별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논문 표절’ 문대성 의원, 1심 항소 제기

법조 관계자는 5일 “국민대를 상대로 ‘박사학위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새누리당 문대성(38) 의원이 3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문 의원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는 판결문 송달 이후 2주 이내에 가능하다.

1심 재판부가 명백한 표절로 결론지었지만, 체육계와 법조계에선 문 의원이 항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소송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임기를 채우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2008베이징 올림픽에서 선수위원에 당선된 문 의원의 임기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다. 국민대측 법률대리인 정승일 변호사는 “사실관계에선 큰 다툼이 없는 상황이다. 간단히 말해 ‘허락을 받고 베끼면 표절이나, 아니냐’의 문제”라고 요약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며,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영희 기자

김효주 휴식으로 더 뜨거워진 ‘신인왕 경쟁’

KLPGA투어 ADT캡스 챔피언십 불참
1위 백규정·2위 고진영 순위다툼 불만

‘지존’ 김효주(19·롯데)가 빠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ADT캡스 챔피언십(총상금 5억원·우승상금 1억원) 우승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

시즌 5승을 기록 중인 김효주가 잠시 휴식을 택했다. 상금왕과 대상(올해의 선수)을 확정된 김효주는 한 주간 쉼 뒤 13일 개막하는 포스코-조선일보 챔피언십에 출전해 시즌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효주의 불참으로 7일 개막하는 ADT캡스 챔피언십 우승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백규정(19·CJ오쇼핑)과 고진영(19·넵스)의 신인왕 경쟁에는 더욱 불이 붙었다. 신인왕 포인트 1위 백규정과 2위 고진영의 격차는 24점에 불과하다. 백규정과 고진영은 앞선 서울경제 레이다스 클래식에서도 3위와 공동 4위로 치열한 순위다툼을 벌였다. 백규정은 “매주 치열하게 경기하고 있다. 신인왕 타이틀이 신경 쓰이기는 하지만, 점수차가 많이 나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타이틀에 대한 욕심보다 열심히 하겠



백규정

고진영

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레이다스 클래식에서 김효주를 연장 접전 끝에 꺾고 시즌 2승을 챙긴 허윤경(24·SBI)은 3승에 도전한다. 허윤경은 “하반기 들어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현재 컨디션도 최상이다. 전략을 잘 세워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박세리(37)도 출전해 후배들과 샷 대결을 펼친다.

주영로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bong82if